

# NFPA 參觀記

## 第80次 年次 總會

李 承 煒

〈技術管理部·次長〉

本稿는 지난 5月 17日부터 1週日間 美國「휴스턴」市에서 開催되었던 第80次 NFPA(國際防火協會)에 本協會의 金雲淑 副理事長님을 隨行, 參席한 바 있는 技術管理部 李次長의 日記中에서 1日分을 拔萃, 掲載한 것이다. —編輯者註—

1976年 5月 17日(月)

어제(16日·日曜日) 金副理事長님을 모시고「콘티넨탈」航空會社の CO 950機便으로「로스앤젤리스」空港을 上午 9時 30分에 出發, 下午 2時半 無事히「휴스턴」國際空港에 到着하였다.

副理事長님을 모시고 온 내가 L.A.에서는 도리어 그 反對로 副理事長님께 큰 신세를 진 셈이어서 飛行機 안에서도 즐근 未安한 心情 뿐이었다.

L.A. International Airport...

「카아펜터즈」가 부른「팝송」을 通해서도 잘 알리어진 L.A. 國際空港은 都是 그 規模가 雄大하고 航空會社別로 離着陸場이 相異할 뿐만 아니라, 有名한 航空會社들 가운데 우리 나라의 KAL이 當當하게 한 몫 끼어 있다는 點이 무엇보다도 印象的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美國에서는 모든 空港의 離着陸場이 航空會社別로 따르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① 어느 會社의, ② 무슨 飛行機便으로, ③ 몇 時에, ④ 어느 空港에 到着한다고 仔細히 일러 주어야만 相對方이 마중을 나갈 수 있다. 單純히 우리 나라 式으로 “몇 時 飛行機着”이라고만 일러 준다면 相對方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한 都市 안에도 비행장이 여러 個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고 한

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일은 空港에 自動式機械가 마련되어 있어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혼자서 簡單하게 保險에 加入하는 風景이었다. 保險도 이 程度로 大衆化·生活化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난다.

上午 9時半에 떠나 下午 2時半에 到着했다면 5時間이 걸린 셈이지만 비행 도중에 時間을 調整하였으므로 實際로는 正確히 몇 時間만에 到着한 것인지 計算하기도 複雜하여 따져 보기도 싫었다. 왜냐하면 이 時間들은 모두 現地 標準時로 記錄한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에는 標準時가 地域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바, 가 로되 Eastern Standard Time, Central Standard Time, Mountain Standard Time, Pacific Standard Time 등등이 그것이며, 그 時差는 대개 1時間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時計를 돌려 놓아야 할 판이니 果然 넓기도 넓은 나라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휴스턴」空港에서 市内까지는 約히 30km가 넘는데 「택시」를 利用하여 이 먼 거리를 달리다 보니 運轉士에게 주는 「팁」까지 合하여 무려 17弗이나 되는 巨額이 아깝게도 날아 갔다. 「팁」주는 習慣이 몸에 배지 못한 이 東洋人에게는 「팁」이란 것이 도무지 加外 돈으로만 여겨졌다. (사실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加外 돈이 심심치 않게 몇 번 날아갔다. 호놀룰루와 L.A.에서의 二重 空港稅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實은 美國에서조차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팁」을 주어야 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相當히 많은 모양인지, 旅行案内冊子 같은 것을 보면 “Tips On Tipping”(「팁」주는 데 관한 「힌트」)이라는 欄이 간혹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런 데 실린 「힌트」의 한 예를 보면, 「택시」運轉士에게는 料金の 15~20%, 空港人夫에게는 가망 한 個當 35 센트 程度, 이발소에선 料金の 15~20% 程度等으로 되어 있다. 「팁」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不分明한 경우에는 대략 料金の 20%線을 주면 無難하다는 이야기이다.

「휴스턴」空港에는 「택시」보다 약간 싼 합승 버스가 있었으나 登錄 마감 시간이 迫頭하였으므로 부득이 「택시」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다.

어쨌든 「하이아트 리전시 호텔」에 도착해 본즉 會議參加者 登錄은 「알버트 토머스 호텔」에서 한다고 알려 준다. 게다가 參加者數가 많아서 당초에 希望했던 대로 「하이아트 리전시 호텔」에는 豫約이 되어 있지 않았고, 金副理事長님은 「세라톤 호텔」에, 나는 「할러데이 인」에 따로 豫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一行을 이렇게 分離시키다니 필시 「컴퓨터」의 失手가 빚어낸 寸劇임이 分明했다.

一行이라고 說明하여 다행히 「세라톤」에 함께 들도록 是正되었다.

登錄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선 가방을 들고 다시 2 弗을 들여 「택시」를 利用, 「알버트 토머스 호텔」로 서둘러 가서 登錄을 마쳤다. (登錄費·18 日 점심값·NFPA 年會費는 모두 합쳐 156 弗이었음.) 그리고 「세라톤 호텔」로 돌아와 비로소 旅裝을 풀었다.

「휴스턴」市는 그 옛날 「멕시코」戰爭의 英雄인 「샘 휴스턴」將軍의 勇名을 딴 都市로서 不過 10 餘年前까지만 해도 오늘날처럼 큰 都市 속에 들지도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石油 때문에 돈을 번 新興甲富들이 모여들고 近來에는 傳統的인 美國의 中心地인 東部를 離脫하여 比較的 公害問題가 덜 심각한 南部로 오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增加하였고 또한 宇宙 「센터」가 開設됨에 따라 이 都市가 몇 년 사이에 급작스러운 發展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南部가 保守的이라고 하더니 과연 이러한 색채가 服裝에도 잘 나타나 있어 짧은 치마를 입은 女子들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형편이었다. L.A.에는 반쯤 벗다시피 차린 男女들도 많았는데 그 곳과는 아주 對照的인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곳 市街 여러 곳에서는 조금만 땅을 파내

려 가도 石油가 쏟아져 나오므로 자연히 基盤이 약한 까닭에 高層建物を 建立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따라서 高層建物 建立場所는 市內의 몇 군데(단단한 땅)로 制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L.A.에서도 보았지만 美國의 곳곳에는 「T」字形의 지렛대 같은 機械가 서 있고 여기 두레박 비슷한 것이 兩端에 달려 있어 이것이 數秒에 1 回씩 움직이는 모양을 흔히 發見할 수 있다.

한 번 두레박질할 때마다 石油가 수 「드림」씩 퍼 올려지는 것이라는 說明이고 보니 부럽기도 하거니와 “참 祝福 받은 나라로구나!” 하는 感歎이 저절로 나오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數千 「미터」를 파고도 아직 無消息인데……

그런데 南北戰爭이 끝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南北間의 해묵은 敵對感은 아직도 潜在的으로 남아 있어 南部人은 經濟權·政治權을 쥐고 있는 北·東部人을 「앵키」라 부르며 輕蔑하는 反面 北·東部人들은 그들대로 南部人을 촌놈들이라고 蔑視하고 있다 하니 意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前述한 대로 「뉴우요르크」나 「시카고」같은 大都市의 北·東部人들이 비교적 公害가 덜하고 폭력 사건 등이 덜 발생하는 南部로 대거 移住함에 따라 近間 南部의 세력은 상당히 伸張되었다고 한다.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會議場所인 「알버트 토머스 호텔」로 向했다. 副理事長님을 모시고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參加者들로 滿場을 이루고 있다. 나중에 듣고 보니 公式的인 會議參席者數는 모두 4,784 名이라 했다.

마침 1976 年은 美國革命(獨立) 200 周年을 紀念하는 해이기도 해서 總會 및 祝祭를 겸하여 舉行한다고 한다.

모든 照明이 서서히 꺼지면서 “參席者들은 모두 起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司會者의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다. 이 소리에 呼應하여 參加者들이 一濟히 起立을 하는데 그렇게 節度가 있을 수가 없었다.

美國 사람들에서는 個人的 自由가 最大限度로 保障되어 있으므로 一般的으로 團體行動을 하는 데 있어서 統一性이 缺如되어 있을 것으로 誤算하기 쉬우나 豫想과는 正反對로 節度와 團結을 보여 주는 것이 신기한 일처럼만 여겨졌다.

역시 美國의 巨大한 原動力과 「포텐셜리티」가 이룬 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個個人은 모두 똑 똑하지만 團結心이 弱한 우리 民族의 病弊가 어렵게만 느껴졌다.

「휴스턴」 高等學校 「밴드」가 “Star Spangled Banner” (美國國歌)를 우렁차게 演奏하는 同時에 舞臺面에는 大形 星條旗가 下部에서부터 上部로 서서히 오르기 始作하는데, 여기에 照明이 集中되니 더욱 아름답고도 엄숙하게 보였다. 끝세, 우리 協會 「빌딩」 竣工式을 舉行한다면 이런 節次를 모방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도 해 본다.

이어서 牧師가 登壇, 美國의 將來를 神에게 의탁하는 敬虔한 祈禱를 하였고, 다시 司會者의 말에 의해 일제히 참석자들이 着席한 후 NFPA 의 회장 (President)인 「차알즈 모오건」氏의 開式辭가 시작되었다.

“우리 NFPA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一般에게 알려졌으며 더욱 奉仕的인 活動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團體가 되었다. 근래에 와서 우리는 具體的인 面에 눈을 돌려 火災報告, 資料分析體系等의 分野에 있어 큰 業績을 남겼다고 自負도 해 본다.

특히 商務省 산하인 Nation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dministration 과는 緊密한 協調關係를 맺어오면서 聯邦政府의 防火 프로그램 作成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또한 最近 數年間 〈長期計劃樹立委員會〉를 組織運營, 現在 모든 作業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內容의 「모오건」會長의 演설이 담담히 進行되는 동안 場內는 완전히 그에게 魅了된 듯이 보였다. 確實히 그는 傑出した 人物 같았으며 「리더십」을 所有한 人士임이 分明했다. 指導者로 말하면 「카리스마」의 인 指導者라고나 할까.

특히 그가 “지난 數年間 火災豫防 責任을 지고 있는 NFPA를 위해 奉仕해 온 本人으로서…”하고 「토운」을 낮추어 엄숙하게 나올 때에는 「센티멘털리즘」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登場한 이는 司會者이며 理事會長인 「프랭크 피」 二世였다.

NFPA 總會에 直接 參席하기 前까지는 그 組織에 대하여 漠然한 概念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直接 와 보니 어느 程度 그 組織體系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即 NFPA에는 任員 (Officers)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會長 (President), 會計 (Treasurer), 書記

(Secretary), 理事會會長 및 第一·第二 理事會副會長 (a Chairman, a First Vice Chairman, a Second Vice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混同이 되기 쉬운 것은 President와 Chairman이다. 우선 理事會 會長 (Chairman)·第一 및 第二副會長·會計·書記는 NFPA의 年次總會에서 選出된다. 이들은 無料奉仕를 하며 任期가 一年이나, 한번 더 連任할 수 있으니 말하자면 名譽職인 셈이다. 이들이 President를 選出하는 바 President는 有給이요, 얼마든 連任할 수 있으니 常任理事요 實務者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必要에 따라 副會長 (Vice President)·書記補 (Assistant Secretary)·會計補 (Assistant Treasurer)를 둘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마침 理事會會長인 「피」氏가 2年間の Chairman職을 辭任하는 해여서 그로서는 마지막 演說을 하는 셈이었다.

場內에 엄숙한 氣分이 넘쳐 흐르는데, 「피」氏는 開口一聲, 텔레비전에 처음 出演한 '사람의 失敗談'에 관한 「조오크」를 한다. 參席者들의 爆笑이 터지는데, 이것도 相對方의 精神을 集中시키는 한 가지 方法인가 보다. 이어서 그는 NFPA의 實績을 나열함으로써 會員들에게 긍지감을 준다. (나는 그가 數字 타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엔 會計報告를 하는가 보다 하고 착각했었다.)

“나는 神이 나로 하여금 火災豫防事業을 위하여 여러분과 일할 機會를 주신 데 대해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老兵은 다만 사라진다 하지만 나는 이와는 달리가 직책의 사임 후에도 여전히 NFPA를 위해 奉仕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역시 그의 演설은 NFPA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會員들에게 긍지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겠다.

이어서 登壇한 會計 (「조지프 잰슨」氏)가 1975年度 收入이 8,059,225弗, 支出은 8,322,076弗로서 262,851弗이 赤字라고 財政狀況을 報告하였다.

그 다음에 새 理事陣 選出이 있었는데 미리 짜여진 各본에 따른 추천, 제청, 만장 일치의 구두 가결식은 一瀉千里 進行이 되었다. 이 結果 選出된 Chairman은 General Electric社의 「윌리엄 A. 매크에덤즈」氏,

First Vice Chairman 은 「매릴랜드」大學의 「존 브라이언」박사……등이었다.

有名한 會社, 大學, 研究機關等의 指導的位置에 있는 사람들을 NFPA의 理事로 選出함으로써 有名人士들의 NFPA 參加를 誘導하고 有名團體들이 NFPA에 대하여 關心을 갖고 積極 協調케 促進시킴으로써 結果적으로는 NFPA의 發展을 기하자는 것이 基本戰略인가 보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任員 소개 후에 總會의 成功을 비는 「포오드」美大統領과 상하원 의원, 各계 各층의 祝電이 왔다는 發表가 있었다.

이어서 獨立紀念 祝賀餘興이 有名한 TV 司會者에 의해 進行되었는데 그의 말이 워낙 빠르고 俗語가 많아 알아 듣기 힘든 部分이 상당히 있었다. 내 英語實力이 형편 없구나 하는 自欺을 질로 하게 된다.

下午부터는 消防器機 展示會 및 各分科委員別 討議가 있었다. 分科委別 討議內容은 主로 「스탠더드」의 改正에 관한 件으로서 改正試案은 이미 配布가 되어 있었던 만큼 대략 그 方向은 參席前에 짐작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消防器機 展示會에서는 212 「부우드」(booth)에 113 個 會社가 製品을 진열, 각기 자기 회사 商標을 선전하는데, 이 회사 「세일즈맨」 말을 들으면 이 회사 製品이 최고인 것 같고 저 회사 말을 들으면 그 회사 製品이 최고인 것 같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새 製品(예를 들면 on-off sprinkler 등)이 눈에 띄지 않아 펴 유감이었다.

그 중에서도 Du Pont 社에서 Halon 1301 消火器의 性能試驗을 하는 것이 注目을 끌었는데 유리로 만든

「박스」안에 사람을 넣고 불을 지른 다음 Halon 으로 이를 消火, 人體에 害를 줌이 없이 간단하고 찌꺼기가 안 남게 效果의인 消防對策을 수립할 수 있다는 誇示를 하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大企業의 消防器機 製造分野에의 進出이다. GE, Gulf, 3M 社等의 큰 기업이 방계 회사를 設立하여 이分野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3M 社의 Lightwater 같은 것은 他製品의 副産物이요 다른 大企業들도 副産物을 利用하여 消防器機를 만들어 내고 있다.

원래 消防器機會社로 出發한 企業들도 消防器機만으로 收支가 안 맞으므로 다른 製品——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會社에선 建設用파이프를 만들어 낸다든가 하는 式의 方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消防器機會社들의 合竝도 活發하게 추진되고 있어 大形化 傾向으로 치닫고 있는 바, Cardox, Fire Boss, Safety First Products Co., Star Sprinkler 社가 Chemetron Corp.에 흡수된 것이 한 例라고 하겠다. 有名한 會社들의 이같은 進出에 對항하려면 既存 群小消防器機會社들의 大形化가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各會社의 製品案內 「카탈로그」등을 얻을 수 있는 데로 얻고 또한 우리 協會의 展示室 設置時 參考가 될만한 進열대를 몇 개 골라 寫眞을 찍은 다음 「부페이」式 점심을 하였다.

오후부터는 各分科委別로 여러 가지 討議가 여러 場所에서 始作되었다. 한편 配偶者 「프로그램」이라 하여 討議에 參席하지 않는 女子들은 따로 市內 觀光을 하였다. (끝)